

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 활성화 연중 캠페인

“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”

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‘전통시장’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
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‘전통시장’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.
 하지만 ‘전통시장’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
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.
 각 자치단체에서는 ‘전통시장’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.
 광주매일신문은 사·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.

- 강진 -

남도의 산해진미가 가득한
강진오일장터



⊙ 장이 서는 날 ⊙
 매월 4일, 9일로 끝나는 날

- 보성 -

먹거리, 볼거리, 즐길거리가 풍성하고 인정이 넘치는
녹차골 보성향토시장



⊙ 장이 서는 날 ⊙
 2일, 7일로 끝나는 날

- 구례 -

지리산의 넉넉함을 담은 인정 가득한 곳

구례5일시장

⊙ 장이 서는 날 ⊙ 매월 3일, 8일로 끝나는 날
 위치 : 구례군 구례읍 5일시장작은길 20



- 나주 -

다양한 식재료를 모두 만날 수 있는

남평 전통시장



⊙ 장이 서는 날 ⊙
 매월 1, 6일로 끝나는 날

전국최초 퓨전시장

목사고을 전통시장



⊙ 장이 서는 날 ⊙
 매월 4, 9일로 끝나는 날

서남해안을 대표하는 5일장

영산포 품물시장

⊙ 장이 서는 날 ⊙
 매월 0, 5일로 끝나는 날



- 곡성 -

섬진강맑은물이 길러낸 우리 농산물이 가득한 곳

**섬진강기차마을전통시장,
 옥과시장, 석곡시장**



⊙ 장이 서는 날 ⊙

- 섬진강기차마을전통시장 : 매월 3일, 8일로 끝나는 날
- 옥과시장 : 매월 4일, 9일로 끝나는 날
- 석곡시장 : 매월 5일, 10일로 끝나는 날 (31일이 말일인 경우 31일)